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5 제2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0쪽

문학 _____ 98쪽

무어의 역설과 그에 대한 힌티카의 설명

지문 평가

‘무어의 역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무어의 설명과 힌티카의 설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어의 역설’은 무어 문장 자체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를 모순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문단에서 정확히 파악해 두지 않았다면, 독해 과정에서 내내 헤맬 것이다.

키워드

인문 - 분석 철학 - 무어의 역설

명제, 논리적 모순, 무어, 무어의 역설, 발화 행위, 힌티카, 믿음, 인식 논리

문단 1 무어의 역설

- 1) 비 오는 광경을 보며 “나는 지금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 보자. ‘지금 비가 온다.’라는 **명제**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며, 나의 말은 이와는 독립적인 내 마음 상태에 관한 명제이므로, 두 명제를 **역접 관계**로 연결해도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는 않는다.

☞ **맥락 짚기** 첫 문단에서 예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문의 흐름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 지문 전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어진 예시의 각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 보자.

- 객관적 사실에 관한 명제: “지금 비가 온다.”
- 내 마음 상태에 관한 명제: “나는 ~라고 믿는다.”
⇒ 두 명제의 관계는 독립적이다.
- 역접 관계: “[하지만] 나는 지금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
⇒ 독립적인 두 명제를 역접 관계로 연결해도 논리적 모순 X

➡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이 중요하다. 애당초 ‘객관적 사실’에 관한 명제와, ‘내 마음 상태’에 관한 명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둘을 역접 관계로 연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 **무어**에 따르면 그럼에도 우리는 ‘P이지만, 나는 P를 믿지 않는다.’와 같은 문장 X를 모순처럼 느낀다. 참으로 보이는 명제들을 논리적 연결 규칙에 따라 연결했음에도 X와 같은 무어 문장이 도출되는 현상을 **무어의 역설**이라 한다.

➡ ‘P이지만, 나는 P를 믿지 않는다.’는 앞선 예시를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P’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명제이고, ‘P를 믿지 않는다.’는 내 마음 상태에 관한 명제이다.

☞ **주목** 이때 각각의 명제는 참이다. 예컨대 ‘지금 비가 온다.’라는 객관적 사실도 참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나의 마음도 참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역접 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분명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데, 우리는 이를 ‘모순’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가리켜 ‘무어의 역설’이라 한다.

무어 문장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데,
우리는 이를 모순처럼 느낀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무어의 역설’이 왜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독해의 초점으로 삼아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가야 한다.

문단 2 무어의 역설에 대한 무어의 설명과 힌티카의 반박

- 1) 무어는 무어의 역설이 **발화 행위**가 갖는 특수한 성질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자기 생각을 표출할 의도로 명제를 발화하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의 표현인데, 무어 문장의 발화는 ‘P’에 대해 인정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표현상의 부조리한 화용론적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무어는 ‘발화 행위’가 ‘자기 생각을 표출할 의도’로 이루어졌을 때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들이 나열되면서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분명히 구분하여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 문제에서 이를 근거로 삼아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발화 행위	자기 생각의 표출을 의도로 하는 발화 행위
그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의 표현 X	그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의 표현 O

➡ ‘무어에 따르면, “지금 비가 온다.”라는 발화는 ‘지금 비가 온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며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용론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주목**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앞선 설명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하자[문단1-1]. ‘지금 비가 오지만, 나는 지금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무어에 따르면, 바로 ‘발화 행위에 의해’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지금 비가 오지만, 나는 지금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 그런데 자기 생각의 표출을 의도로 하는 발화 행위에는 ‘지금 비가 온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이 포함된다. ⇒ 따라서 발화에 의해 화용론적 모순이 발생한다. ⇒ 그래서 우리는 무어 문장을 모순처럼 느끼는 것이다.

- 2) 이에 대해 **힌티카**는 무어의 역설을 단순히 언어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X와 같은 문장을 떠올리기만 해도 주체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화되지 않더라도 무어 문장은 여전히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무어의 설명에 대한 반박이다. ‘힌티카’와 ‘무어’의 관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이렇게 이해하자. ‘무어에 따르면’ ‘무어의 역설’은 발화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 ‘언어적 현상’에 불과하다. 즉 발화되지 않았을 때 무어 문장은 모순처럼 느껴질 이유가 없다.

☞ **주목** 반면 ‘힌티카’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다. 발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어	힌티카
자기 생각의 표출을 의도로 하는 발화 행위에서만 그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	발화하지 않고 떠올리기만 해도 그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

➡ 즉 앞선 무어의 설명과 달리[문단2-1],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지금 비가 오지만, 나는 지금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 발화되지 않아도, ‘지금 비가 온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이 포함된다. ⇒ 그래서 발화되지 않아도 무어 문장은 여전히 모순처럼 느껴진다.

문단 3 무어의 역설에 대한 힌티카의 설명

1) 힌티카는 믿음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다루는 자신의 **인식 논리**를 토대로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다. 그 인식 논리에 따르면, '나는 P를 믿는다.'가 참이면 '나는 내가 P를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 역시 참이다.

➡ 그렇다면 '힌티카'는 '무어의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 문장들만 보았을 때에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문단-1], 도대체 왜 우리는 무어 문장을 모순처럼 느끼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 그와 관련하여 '인식 논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어졌다. '나는 P를 믿는다.'는 내 마음 상태에 관한 명제이다[문단-1]. 이러한 명제가 참이라면, '나는 내가 P를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도 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것이 힌티카의 '인식 논리'이다.

2) 또한 무어 문장에 대한 발화나 생각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함축하며, 그 믿음은 'P이다.'와 '나는 P를 믿지 않는다.'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의미한다. 결국 내가 무어 문장을 믿는 것은 내가 P라고 믿는 동시에 P라고 믿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 주목 발화되지 않아도, 즉 '생각'만 했을 뿐이라도 이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함축한다. 이렇게 발화에 국한되지 않고 '믿음'에 대해 따지고 있다는 점이 '발화되는 경우'만을 따진 무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 따라서 'P이지만, 나는 P를 믿지 않는다.'라는 무어 문장[문단-2], 'P이다.'와 '나는 P를 믿지 않는다.'에 대한 믿음을 함축한다. 즉 무어 문장에 대한 믿음은 '나는 P를 믿는다.'와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를 동시에 함축하는 셈이다. 여기서 다시 힌티카의 인식 논리를 돌이켜 보면, 동시에 참일 수 없는 두 믿음이 공존함을 깨달을 수 있다.

• 무어 문장에 대한 믿음 : '나는 P를 믿는다.'와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를 동시에 함축하는 것

3) 믿음에 대한 힌티카의 인식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어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체의 믿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모순에 의해 무어의 역설이 생긴다는 것이다.

➡ '힌티카'는 '무어 문장'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은 발화 여부와 무관하게, '믿음들 간의 논리적 모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힌티카의 인식 논리에 따르면, '나는 P를 믿는다.'가 참이면 '나는 내가 P를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가 참이므로,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짓이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P를 믿는다.'와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를 동시에 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 주목 정리하면, '힌티카'는 무어 문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독립적 명제들의 역전 연결은 논리적 연결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떠올린, 혹은 발화한 주체들의 믿음들 간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어 문장을 모순처럼 느낀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무어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체의 믿음들'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비가 오지만, 나는 지금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 해당 문장에 대한 발화나 생각은 '나는 P를 믿는다.'와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두 믿음을 함축한다. ⇨ 따라서 믿음들 간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 그래서 우리는 무어 문장을 모순처럼 느끼는 것이다.

문단 4 힌티카의 인식 논리의 맹점

1) 믿음에 대한 힌티카의 인식 논리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인식 논리가 틀렸음을 보여 주는 '반례'가 있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문단3은 '무어의 역설'에 대한 힌티카의 반박이었다면, 여기서는 '힌티카의 설명'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당 반박이 '힌티카'의 주장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령, 인종 차별적인 언행을 일삼는 갑이 있을 때, 갑의 언행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그에게 **인종 차별이 옳다**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갑 자신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종 차별이 옳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즉 '나는 P를 믿는다.'가 참일 동시에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도 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례'를 근거로 삼으면 힌티카의 대안적 설명은 무어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맥락 짚기 예시가 주어질 때에는 주어진 예시의 각 내용들이 앞선 설명에서의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읽어야 한다.

- 인종 차별이 옳다는 믿음 : '나는 인종 차별이 옳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암묵적 믿음
- 인종 차별이 옳지 않다는 믿음 : '나는 인종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
- ⇨ 두 믿음을 동시에 갖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 '힌티카의 인식 논리'에 따르면 '나는 P를 믿는다.'와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두 믿음을 동시에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문단3]. 하지만 '반례'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동시에 갖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이러한 반례를 수용한다면, 여전히 '무어의 역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주체들 간의 믿음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믿음에는 주체가 인지하면서 믿는 **명시적 믿음** 외에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는 **암묵적 믿음**이 있다. 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채 특정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 그와 관련한 암묵적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맥락 짚기 발문을 참고하면 문단4의 반례에 대한 '힌티카'의 반론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힌티카'의 입장에 따라, 왜 여전히 '나는 P를 믿는다.'라는 믿음과 '나는 내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동시에 갖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문단3].

※ 주목 '명시적 믿음'과 '암묵적 믿음'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단4의 반례에서 각각 '인종차별이 옳다'는 믿음'과 '인종차별이 옳지 않다'는 믿음'에 대응된다.

- 인종 차별이 옳다는 믿음 : '나는 인종 차별이 옳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 ⇨ 반복된 언행을 통해 알 수 있는 '암묵적 믿음'
- 인종 차별이 옳지 않다는 믿음 : '나는 인종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 ⇨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명시적 믿음'

2)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믿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그 상태는 주체의 내면에서 믿음이 파편화된 상태에 해당한다. 이럴 때 그 믿음들 사이의 논리적 모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다루는 인식 논리는 같은 종류의 믿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결국 <보기>의 요지는 '주체의 믿음들 간의 논리적 판단'은 같은 종류의 믿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명시적 믿음과 명시적 믿음', 혹은 '암묵적 믿음과 암묵적 믿음' 간에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는지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제시된 반례에서는 '인종 차별이 옳다.'라는 암묵적 믿음과, '인종 차별이 옳지 않다.'라는 명시적 믿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힌티카의 인식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명시적 믿음과 암묵적 믿음' 간에는 논리적 관계를 따질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힌티카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⑥번 선택지는 적절하다.



[8~11] 과학

피리어드 단백질과 일주 리듬

지문 평가

생리학 지문에서는 특정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과, 정상 상황과 이상 상황을 구분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키워드를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로 두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자.

키워드

과학 - 생리학 - 일주 리듬

일주 리듬, 피리어드 단백질, 수면 장애, 클록 단백질, 피리어드 유전자, mRNA, 리보솜, 피드백 작용, 단백질 분해 효소, 유비퀴틴, 아세틸기, 시르투인 1, NAD, 수소 양이온, NADH

문단 1 일주 리듬

1) 인체의 생리 현상들 중에는 하루를 주기로 변화하는 일주 리듬을 가지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일주 리듬의 형성과 유지에는 피리어드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를 주기로 하는 세포 내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에 생리 현상이 동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 사람의 생리 현상 중에서 하루를 주기로 변화하는 것들인—일주 리듬을 가지는 것들인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하루를 주기로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그런데 세포 내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주기에 이상이 생기면 일주 리듬이 교란될 수 있다. 야식을 먹는 습관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그 예의 하나이다.

➡ 따라서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주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에 동조화되어 있는 생리 현상에도 이상이 생긴다. '수면'도 일주 리듬을 갖는 생리 현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주기에 이상이 생기면,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 **백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위 설명에 따르면 '수면 장애'는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주기'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그 '이상'이 '야식을 먹는 습관'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2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1) 낮에는 클록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 세포 내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진다. 밝은 빛의 자극에 의해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된 클록 단백질은 ……

➡ 낮이 밤과 다른 이유는 밝은 빛 때문이다. 밝은 빛에 의해 '클록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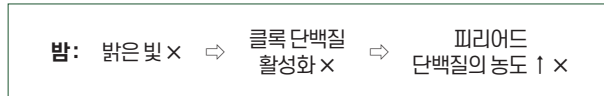
낮: 밝은 빛 ⇨ 클록 단백질 활성화 ⇨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

2) …… 세포핵 내부에서 피리어드 유전자를 근거로 한 mRNA의 생성을 촉진하며, 그렇게 생성된 mRNA가 세포핵 외부로 빠져나오면 세포 내 소기관인 리보솜이 이를 토대로 피리어드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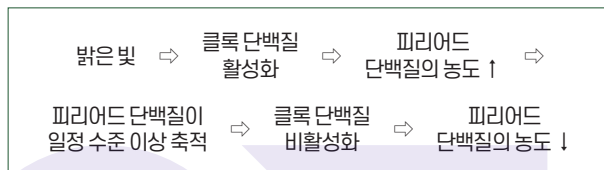
▶ 클록 단백질의 활성화가 어떻게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상술이다.

- 3) 이와 달리 밤에는 세포 내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클록 단백질에 활성화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물론, 세포 내 피리어드 단백질이 일정량을 넘어 축적되면서 피리어드 단백질의 **피드백 작용**에 의해 클록 단백질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리어드 단백질 중의 일부가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 주목 반면 밤에는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지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열거된 각 이유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 먼저 밤에는 '밝은 빛'이 없으므로 클록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상승도 억제된다.



▶ 또한 '피리어드 단백질'은 그 양이 늘어나면, 그 양이 늘어나게 된 원인인 '클록 단백질'을 비활성화시킨다. 이를 가리켜 '피드백 작용'이라 한다. 즉 앞선 상황에서는 '새로운 클록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였다면, 이 상황에서는 '기존의 클록 단백질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 참고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항상성'이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서, 인체에 어떤 물질이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체내에서 그 양을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이 그에 해당한다.

▶ 마지막으로 '피리어드 단백질'이 직접 앞선 두 상황에서는 모두 클록 단백질의 비활성화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조절되었다. 분해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는 낮아질 것이다.

※ 주목 결국 낮에는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상승하고, 밤에는 반대로 낮아지는 것이 바로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주기'에 해당한다[문단 1-2].

문단 3 피리어드 단백질의 분해

- 1) 밤낮과 무관하게 **단백질 분해 효소**는 분해될 대상을 표지하는 물질인 **유비퀴틴**을 인지하여 그와 결합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유비퀴틴과 결합된 피리어드 단백질은 밤에 늘어난다.

※ 맥락 짚기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이유들 중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한 분해'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글의 초점을 의식했을 때, 이는 결국 '야식을 먹는데 습관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해당 이유와 관련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 주목 '피리어드 단백질'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려면 '유비퀴틴'이 피리어드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데, 정작 피리어드 단백질의 분해는 낮보다 밤에 더 잘 일어나게 된단다[→ 즉 하루를 주기로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한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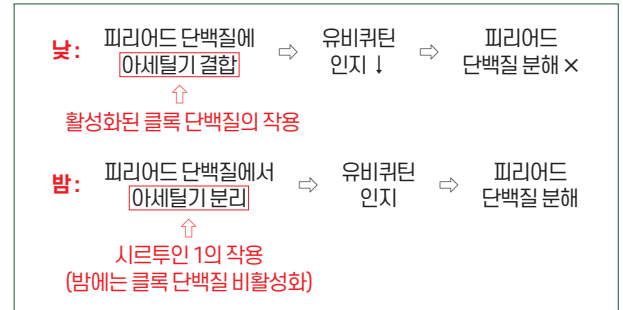
- 2) 이 과정에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아세틸기**를 분리하는 효소인 **시르투인 1**이 관여한다. 낮에 클록 단백질은 피리어드 단백질에서 유비퀴틴이 결합되는 부위에 아세틸기를 결합시켜서 피리어드 단

백질의 분해를 막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클록 단백질이 밤에 비활성화되면서 시르투인 1이 피리어드 단백질로부터 아세틸기를 분리하면, 그 부위에 유비퀴틴이 결합되는 것이다.

▶ 낮에 활성화된 '클록 단백질'은 '피리어드 단백질'에 '아세틸기'를 결합시킴으로써, 유비퀴틴이 피리어드 단백질에 결합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피리어드 단백질'은 낮에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

▶ 다만 밤에는 클록 단백질이 비활성화되므로[문단 2-2], 아세틸기를 결합시키는 작용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 '시르투인 1'은 단백질에 결합된 아세틸기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밤에는 그렇게 분리된 아세틸기가 다시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밤에는 '피리어드 단백질'에 유비퀴틴이 결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그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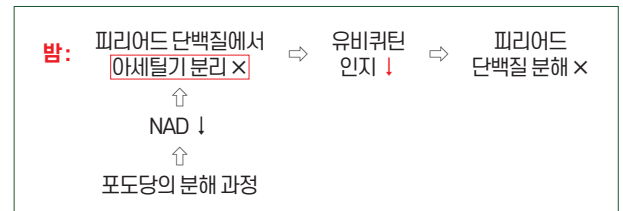
문단 4 NAD 농도에 따른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 1) 피리어드 단백질에서 분리된 아세틸기는 **NAD**라는 물질과 결합하므로 피리어드 단백질에서 아세틸기가 원활하게 분리되려면 세포 내 NAD의 농도가 높아야 한다.

▶ 시르투인 1에 의해 아세틸기가 잘 분리되려면, 분리된 아세틸기가 결합할 NAD가 충분히 존재해야만 한다.

- 2) 그런데 NAD는 음식으로 섭취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도 관여한다. 포도당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과 결합하여 **NADH**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밤에 음식을 먹으면 세포 내 NAD의 농도가 낮아져 피리어드 단백질에서 아세틸기가 잘 분리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 주목 그런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의 분해 과정'이 촉발되고, 그에 따라 NAD가 NADH로 전환됨에 따라 그 농도가 '낮아진다'. 즉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한 아세틸기가 잘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 3) 이 환경은 밤에도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며, 이로 인해 수면 패턴이 반복적으로 교란될 경우에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 이렇게 피리어드 단백질의 직접적인 분해가 억제됨에 따라 밤이 되어도 그 농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못하면, 결국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주기'에 이상이 생긴다. 그에 따라 '일주 리듬'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보기> 문단

- 1) 선천적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가상의 환자 A~C'의 상태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단, 각 환자에게 다른 추가적인 결함은 없다고 가정한다.)

◀▶ 맥락 읽기 지문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 모두 '피리어드 단백질 농도 변화 주기'에 문제가 있어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것이다. 즉 어떠한 이유로 피리어드 단백질이 낮에 충분히 높지 않거나, 밤에 충분히 낮지 않은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변화 주기'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참조해야 한다[문단2~2].

- 2) ○ 환자 A : 클록 단백질의 기능 중 피리어드 단백질에 **아세틸기**를 결합하는 기능만 **저해**되어 있다.

▶ 피리어드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결합하지 못하면, '유비퀴틴'이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고, 그에 따라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 주목 본래 낮에는 '클록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 '아세틸기'가 피리어드 단백질에 결합함에 따라 유비퀴틴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능이 저해되면, 원래는 농도가 높아야 하는 낮에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것이다[문단3~2].

환자 A : 낮에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 ⇒ 수면 장애

- 3) ○ 환자 B : 피리어드 단백질이 **유비퀴틴**과 잘 결합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피리어드 단백질은 '유비퀴틴'과 결합해야만 분해 효소에 의하여 분해된다 [문단3~1]. 즉 유비퀴틴과 잘 결합하지 못하면 결국 피리어드 단백질의 분해가 억제된다. 따라서 원래는 농도가 낮아야 하는 밤에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수면 장애의 원인일 것이다.

환자 B : 밤에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 ⇒ 수면 장애

- 4) ○ 환자 C : 피리어드 단백질에서 아세틸기를 분리하는 **시르투인 1**의 기능이 **저해**되어 있다.

▶ 시르투인 1은 '아세틸기'를 피리어드 단백질에서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기능이 저해되어 있다면, 유비퀴틴이 피리어드 단백질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그 분해가 억제된다[문단3~1]. 즉 밤에는 분해되어야 하는 피리어드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아서, 밤에도 그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수면 장애의 원인일 것이다.

환자 C : 밤에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 ↑ ⇒ 수면 장애

∴ 환자 C의 경우에는 '시르투인 1'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밤에도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반면 환자 A의 경우에는 피리어드 단백질이 잘 분해되어서 낮에도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낮게 유지된다. 그러므로 밤에도 당연히 피리어드 단백질의 농도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다.

[12~17] 사회 통합

시장 집중도와 기업 결합의 제한 여부

지문 평가

얼핏 보면 정보량이 상당히 보이지만, 개념들 간의 위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만 잘 파악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글이다. (가)에서는 각각의 시장 집중도 지표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고, (나)에서는 실제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가 어떤 기준들에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키워드

(가) 사회 - 경제학 - 독점 시장, 시장 집중도

완전 경쟁 시장, 한계 비용, 사회적 후생, 독점 시장, 시장 지배력, 시장 집중도, 러너 지수, 상위 기업 집중도(ORk), 허핀달 지수(HH), 협조

(나) 사회 - 법학 - 공정 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

기업 결합, 공정 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 안전지대 기준, 독행 기업

(가) 문단 1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의 폐해와 시장 집중도

- 1)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한계 비용**(= 재화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이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으로 생산량을 정하며, 이때 **사회적 후생**은 극대화된다.

▶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없다. 시장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 다만 이때의 가격이 시장 전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좋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은 '가격=한계 비용'의 수준인데, 이 가격대에서 '사회적 후생'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가격 = 한계 비용

- 2) 이와 달리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 경쟁 상황보다 가격은 높고 생산량이 적어서 **사회적 후생**도 줄어든다.

▶▶ 맥락 읽기 '독점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들과 달리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여러 기업 시장 지배력 ×	독점 기업, 소수 기업 시장 지배력 ○

▶ 독점 기업은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결정한 가격을 따르지 않는 만큼],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한다. 그 결과 '사회적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 ⇒ 생산량 ↓, 가격 ↑ ⇒ 사회적 후생 ↓

- 3)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때의,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하려면 우선 **시장 집중도**를 파악해야 한다.

◀ 맥락 짚기 독점 기업이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결국 '독점의 폐해'라는 문제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 집중도'를 파악해야 한다. 시장 집중도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문제 상황 : 독점의 폐해[→ 사회적 후생 ↓]
- 문제 원인 :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 행사
- 해결 방안 : 시장 집중도 파악 ⇒ 정책적 대응

(가)문단 2 러너지수

1) 시장에 이미 행사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시장 집중도로, **러너지수**가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이 한계 비용을 얼마나 초과하여 가격을 설정했는가를 나타내며, 가격에서 한계 비용을 뺀 값을 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렇게 구한 러너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클수록 행사된 시장 지배력이 큰 상태를 뜻한다.

▶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가격=한계 비용'이 성립하는 지점이다 [문단-1]}. '독점 기업'은 그것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계 비용'을 얼마나 초과하여 가격을 설정하였는지를 통해 현재 얼마만큼의 시장 지배력[→ 기업이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행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맥락 짚기 러너지수의 정의가 수식의 형태로 주어졌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에는 항상 유의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text{러너지수} = \frac{\text{가격} - \text{한계 비용}}{\text{가격}}$$

개별 기업의 러너지수 ↑ ⇒ 시장 지배력 ↑

2) 그런데 러너지수는 이미 행사된 시장 지배력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재적인 가격 설정의 힘이 막대한 독점 기업조차 실제로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값일 수 있다. 즉 잠재적인 시장 지배력에 대한 예측 수단으로 러너지수를 사용하기 힘든 것이다.

◀ 맥락 짚기 러너지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미 행사된 시장 지배력'과 '잠재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들이 열거되면서 구분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선지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행사된 시장 지배력 [→ 러너지수]	잠재적인 시장 지배력
---------------------------	-------------

▶ 설명 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더라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러너지수'에 의존해서는 '시장 집중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무래도 '러너지수'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3) 그래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예측에는 시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그 시장 구조를 보여주는 **상위 기업 집중도(CRk)**나 **허핀달 지수(HHI)**가 널리 사용된다.

◀ 맥락 짚기 대안으로 'CRk, HHI'가 주어졌다. 이들은 '잠재적인 시장 지배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너지수'와 구분되고, 바로 그 점에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예측에서 활용된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이 둘이 훨씬 더 중요한 셈이다[문단1-3].

(가)문단 3 CRk와 HHI

1) CRk는 상위 k번째까지의 점유율만을 합한 것이다. 1위와 2위 기업의 점유율이 40%, 30%라면 CR2는 70인 것이다. 시장 전체의 점유율 양상을 보려면 HHI를 쓰는 것이 좋다. 이는 시장에 속한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각각 제곱하여 합한 값이다. 점유율이 50%, 30%, 20%인 세 기업만 있다면 HHI는 2500과 900, 400을 합하여 얻은 3,800인 것이다. HHI는 그 값이 클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음을 뜻한다.

◀ 맥락 짚기 CRk와 HHI를 구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주어졌으니, 해당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각을 구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개수 : n개 'CRk' = 1위 기업의 점유율 + ... + k위 기업의 점유율 CR2 = 40 + 30 = 70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개수 : 3개 'HHI' = (1위 기업의 점유율)² + ... + (3위 기업의 점유율)² HHI = 50² + 30² + 20² = 3,800
--	--

◀ 맥락 짚기 또한 HHI와 관련하여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HHI ↑ ⇒ 시장 집중도 ↑
▶ 참고 지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CRk도 k의 값이 일정할 때[→ 취지를 고려했을 때 너무 높은 값으로 정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그래야만 소수의 기업들에 점유율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높을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다. 그만큼 k개의 기업에 점유율이 몰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CRk ↑ ⇒ 시장 집중도 ↑

2) 보통 CRk가 상위 기업 간의 점유율 격차를 담지 못하고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반영하지도 않으므로, HHI가 더 우월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HHI는 점유율이 동일한 기업들 간에 나타나기 쉬운, **협조**와 같은 담합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맥락 짚기 CRk, HHI는 공통적으로 '러너지수'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이 둘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CRk'는 '시장 전체의 점유율 양상'을 살피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는 'HHI'가 장점을 갖는다.

▶ 다만 HHI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점유율이 동일한 기업들' 간에 나타나기 쉬운 담합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두 방법 모두 각각의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둘 중 더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CRk	HHI
모든 기업의 점유율 반영 ×	담합의 위험 반영 ×

▶ 'HHI'가 특정 상황에서 왜 담합의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지는 HHI를 구하는 방법을 토대로 알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전부 비슷한 기업들로[→ 담합의 위험이 높음] 구성된 시장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장 구조에 비해 HHI의 값이 낮아지므로, 시장 집중도가 낮다고 오판하게 된다. 그래서 담합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14번 문항에서 잘 다루고 있다. 쉽게 말해 시장 점유율이 다 똑같다면, HHI의 값이 낮음에도 우리 모두 같은 처지이니 담합해서 모두의 이익을 높이는 동기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나) 문단 1 기업 결합의 제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공통의 지배력하에 통합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면이 있으나,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후생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업 결합이 제한되기도 한다.

☞ **백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나)의 독해에 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가)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문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 우선 파악해야 하는 '시장 집중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가)의 문단1-3], (나)에서는 '기업 결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문제 상황: 시장의 경쟁 제한[→ 사회적 후생!]
- 문제 원인: 기업 결합
- 해결 방안: 기업 결합의 제한

(나) 문단 2 기업 결합 제한 심사의 기준

1) **중전**에는 시장 집중도 지표에 따라 심사 결과가 좌우되었다. **공정 거래법**을 따를 때, 결합 대상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가 1위가 되고, 결합 후 2위 기업과의 점유율 차이가 1위 기업 점유율의 1/4 이상이며,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이 75 이상이 되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업 결합은 경쟁을 제한한다고 추정된다.

☞ **백락 짚기** 법학 지문에서는 열거되는 요건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따져야만 하는 지점들이기 때문이다. 편의상 기업 결합이 예정되어 있는 두 기업을 각각 A와 B로 표기하도록 하자.

- 1 A의 점유율 + B의 점유율 $\Rightarrow$ 1위
- 2 결합 후 2위 기업과의 점유율 차이 $\geq$ (A+B)의 점유율 $\times$ 1/4
- 3 CR1 50이상 or CR3 75이상

☞ **주목**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중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에만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③은 앞서 살펴본 내용인 만큼 특히 유의하여 참고해야겠다 [(가)의 문단3].

2) 아울러 심사 편의를 위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상황인 **안전지대 기준**도 활용된다.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으면서, 동종 업계의 기업 간 결합인 수평적 결합일 때 결합 후 HHI가 1,200 미만이거나,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이거나, 2,500 이상이면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들이 안전지대에 속한다.

☞ **백락 짚기** 경쟁 제한성의 요건과 반대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상황인 '안전지대 기준'의 요건이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헛갈리지 말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 1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음
- 2 '결합 후 HHI < 1,200'
or '결합 후 1,200 $\leq$ HHI < 2,500일 때, HHI 증가분 < 250'
or '결합 후 2,500 $\leq$ HHI일 때, HHI 증가분 < 150'

☞ **주목** 그중에서도 1은 직전에 설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함을 파악해야만 한대[문단2-1)], 즉 2-1)의 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만 '안전지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더 엄격한 기준이라서, 그것을 충족할 때에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나) 문단 3 기업 결합 제한 심사 방식의 전환

근래에는 이러한 지표들에 더해 기업 결합이 야기할 다양한 효과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안전지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들을 대상으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나 기업 결합 후 효율성 향상으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들까지도 심사에서 감안하는 것이다.

☞ **주목** 핵심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중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전지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집중도에 따라 그 자체로 기업 결합이 제한될 여지가 높았다. 현대 '근래'에는 설명 문단2-1)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요소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결합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애기다.

☞ **참고** 이때 '안전지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들'을 따지는 이유는, 안전지대에 속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으므로 기업 결합을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 문단 4 기업 결합 제한 심사와 독행 기업

인수되는 당사자가 독행 기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도 심사의 고려 대상이다. **독행 기업**이란 소비자를 유리하게 하는 시장 파괴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토대로 가격 인상을 추종하지 않고도 이윤을 얻거나, 생산량을 늘릴 능력이 있으면서 한계 비용도 낮아서 업계의 관행에 반대해 온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수되는 상대 기업이 독행 기업으로 인정되면 이를 흡수하여 사라지게 함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높아진다고 평가되기 쉽다.

➡ '독행 기업'은 가격 인상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후생에 기여한다. 결국 '사회적 후생'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점이었으므로[문단], 독행 기업이 기업 결합에 의해 사라지는 것은, '경쟁 제한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쉽다.

(나) 문단 5 기업 결합이 인정되는 경우

물론 이러한 경우조차 인접 시장이 존재하는지 등이 고려되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거나 기업 결합이 아니고는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기업 결합이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독행 기업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업 결합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 체크해 두고, 나중에 실제로 선지를 판단할 때 돌아와서 참고해도 충분히 보인다.

<보기> 문단

1)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에 A~F의 여섯 기업만 존재하는데, A가 D 혹은 E와의 **기업 결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기업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업	A	B	C	D	E	F
점유율(%)	30	30	20	10	5	5

2) 단, ㉔ A와 D의 결합이나 ㉕ A와 E의 결합은 모두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속하며, 기업들 중 E만이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심사에서 **독행 기업**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참고로 현재의 **HHI**는 2,350이며, A와 D의 결합 후 HHI는 2,950, A와 E의 결합 후 HHI는 2,650이다.

☞ **백락 짚기** 지문에서 다른 개념들을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끌고 오는 것이 관건이다. 'A와 D' → ㉔, 'A와 E' → ㉕ 각각의 경우에 '경쟁 제한성이 추정' 될지, 추정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겠다(나)의 문단2]. 그런데 더 나아가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더라도,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결합이 허가될 수도 있다(나)의 문단3]. 이 지점까지 전부 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먼저 ㉔의 '결합 후 HHI'는 이런 식으로 구해졌을 것이다.

기업	A+D	B	C	E	F
점유율(%)	30+10	30	20	5	5
HHI = 40 ² + 30 ² + 20 ² + 5 ² + 5 ² = 2,950					

➡ ㉕가 '안전지대'에 속하는지부터 따져 보자(나)의 문단2-2)].

- 1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음
- 2 '결합 후 HHI < 1,200'
or '결합 후 1,200 ≤ HHI < 2,500일 때, HHI 증가분 < 250'
or '결합 후 2,500 ≤ HHI일 때, HHI 증가분 < 150'

➡ 그런데 여기서 1을 판단하려면, 그에 앞서 다음 요건들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나)의 문단2-1)].

- 1 A의 점유율 + D의 점유율 ⇨ 1위
- 2 B와의 점유율 차이 ≥ (A + D)의 점유율 × 1/4
- 3 CR1 500이상 or CR3 750이상

➡ 먼저 1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2의 경우 결합 후 2위 기업인 B와의 점유율 차이 10%는 결합 후의 점유율인 40%의 1/4인 10%의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3의 경우도 충족한다. CR1은 500이하이지만, CR3이 90으로 75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경쟁 제한성'이 추정된다.

☞ **주목** 이렇게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므로, 자연히 ㉔는 안전지대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는 2를 판단해도 마찬가지이다. 결합 후 HHI가 2,950인데, HHI 증가분이 150보다 큰 600[→ 2,950 - 2,350]이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㉕의 '결합 후 HHI'는 이런 식으로 구해졌을 것이다.

기업	A+E	B	C	D	F
점유율(%)	30+5	30	20	10	5
HHI = 35 ² + 30 ² + 20 ² + 10 ² + 5 ² = 2,650					

➡ ㉕가 '안전지대'에 속하는지도 따져 보자(나)의 문단2-2)].

- 1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음
- 2 '결합 후 HHI < 1,200'
or '결합 후 1,200 ≤ HHI < 2,500일 때, HHI 증가분 < 250'
or '결합 후 2,500 ≤ HHI일 때, HHI 증가분 < 150'

➡ 마찬가지로 여기서 1을 판단하려면, 그에 앞서 다음 요건들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나)의 문단2-1)].

- 1 A의 점유율 + E의 점유율 ⇨ 1위
- 2 B와의 점유율 차이 ≥ (A + E)의 점유율 × 1/4
- 3 CR1 500이상 or CR3 750이상

➡ 먼저 1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의 경우 결합 후 2위 기업인 B와의 점유율 차이 5%는 결합 후의 점유율인 35%의 1/4인 8.75%보다 작다. 따라서 ㉕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

➡ 이렇게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㉕는 '안전지대 기준'에 필요한 1을 충족한다. 다만 2에 의해 안전지대에 속하지는 못한다. 결합 후 HHI가 2,650인데, 이때 HHI 증가분이 150보다 큰 300[→ 2,650 - 2,350]이기 때문이다.

∴ 다만 근래에는 이렇게 '안전지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결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령 여기서는 E가 독행 기업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 결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나)의 문단3]. 다만 ㉕의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B와의 점유율 차이 ≥ (A + E)의 점유율 × 1/4'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㉕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업 결합이 아니고는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기업 결합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나)의 문단5], 해당 선지는 더욱 적절하지 않다.

[18~21] 고전시가

(가) 「입암이십구곡」

— 박인로 —

작품 평가

임진왜란 이후 무관 직위에서 물러난 작가가 시골에서 은거하던 중 당대의 저명한 유학자 장현광이 은거하던 곳을 찾아 그 주변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지은 총 29수의 연시조이다. 은거하는 사대부의 올곧은 마음가짐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제 5수 바위에게 물음

탁연 직립(卓然直立, 홀로 뻗어나 곧게 서 있음)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 뻗어나게 곧게 서 있으니[그 모습을 남들이] 본받을 만하다마는,

▶ 화자는 바위의 곧게 서 있는 모습이 표상하는 삶의 자세를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고 칭송하고 있다.

구름 깊은 골에 알 이 있어 찾아오라

→ 구름이[자욱하게 깔린] 깊은 골에[바위를] 알고 찾아올 사람 있겠는가?

▶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바위가 서 있는 깊은 골짜기에 구름이 자욱하게 깔려 있어 바위의 존재를 알아보고 찾아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나 광야(廣野)에 읊아 모두 보게 하여라

→ 이제라도 광야로 옮겨[가 다른 사람들] 모두 보게 하여라.

▶ <제5수>는 화자가 바위에게 건네는 말로 되어 있다. 바위의 '탁연 직립'이 본받을 만하지만 바위가 깊은 골짜기에 있는 까닭에 바위를 보는 사람이 없을 안타깝게 여기며, 너른 들로 자리를 옮기라고 말하고 있다. '입암'의 본받을 만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제 6수 바위가 대답함

세정(世情, 세상의 사정이나 형편)이 하(= 매우) 수상하니 나를 본들 길런가

→ 세상 형편이 매우 수상하니[사람들이] 나를 본들 반기겠는가?

▶ '광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화자[→ '입암이십구곡' 전체의 화자이자 <제5수>의 화자인 인물]가 말하자, 바위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매우 수상하니 사람들이 자신을 봐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바위가 스스로 은거하는 삶의 이유를 설명하는 셈이다.

왕기 순인(枉己循人,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음)하여 내 어디 읊아가랴

→ 나를 버리고 남을 좇아 내 어디로 옮겨 가리?

▶ 설의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자리, 곧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삼긴 대로 늙으리라

→ 산 좋고 물 좋은 골에서 생긴 대로 늙으리라.

▶ <제6수>는 바위가 화자에게 대답하는 말이다. 바위는 화자의 권유를 거절하고 자신이 지금 있는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며 늙어 가겠노라 대답한다. 바위의 관점에서, 거처를 옮겨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참됨을 버리고 남의 어리석음을 좇는 일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지켜 온 삶의 방식이 옳다는 자부심과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 7수 바위에게 물음

천황씨(天皇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첫 번째 제왕) 때부터 이 심산(深山)에 혼자 있으며

→ 천황씨가 세상을 다스리던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깊은 산중에 혼자 있으면서,

너 보고 반기는 이 몇 사람 만났던고

→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서] 너를 만나 반가워하는 사람을 몇이나 만났느냐?

만고(萬古)의 허다 영웅(許多英雄)을 들어 보려 하노라

→ 그 오랜 동안 있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너에게서] 들어 보고 싶구나.

▶ <제7수>의 화자는 바위에게 이제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만고의 허다 영웅'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물으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광야'가 아니라 '이 심산'을 찾아와서 바위를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그가 관심을 갖는 '허다 영웅'이란 곧 세속을 등지고 은거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제 8수 바위가 대답함

소허(巢許, 세상을 등지고 은거한 소부(巢)와 허유(許) 지낸 후(後)에 엄 처사(嚴處士, 세상을 등지고 은거한 엄자릉)를 만났다가

→ 소허가[내 곁을] 지나간 뒤에 엄 처사를 만났다가,

▶ 소부와 허유, 엄자릉은 모두 은사(隱士, 은거한 선비)로 유명한 인물들이다.

안타깝게 여의고 알 이 없이 버려졌더니

→ 안타깝게[그를] 여의고[나를] 알 사람도 없이[내가] 버려졌더니,

▶ 바위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버려진 듯 지냈다고 말한다.

오늘사 또 너를 만나니 시운(時運, 시대나 그때의 운수)인가 하노라

→ 오늘에야 또 너[→ 화자]를 만나니[내] 운수가 좋다고 생각하노라.

▶ 오랜 기다림 끝에 화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바위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화자가 버려져 있던 바위의 덕성을 알아본 남다른 인물이라는 말이 된다. 결국 작가는 바위의 말을 빌려, '너'라고 불린 인물인 화자가 소부나 허유, 엄자릉 못지않은 은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참고 자료

이해와 감상

「입암이십구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수>~<제4수>: 모두 '입암(立巖, 포항 죽장면 입암리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바위)'이라는 제목으로 입암 바위를 바라보며 화자가 하는 생각을 담고 있다.
2. <제5수>~<제10수>: 화자가 입암에게 건네는 말인 '문암(問巖, 바위에게 물음)'과 입암이 화자에게 대답하는 말인 '암답(巖答, 바위가 대답함)'이 짝을 지은 가상의 문답이 세 번 반복된다.
3. <제11수>~<제29수>: 입암 부근 여러 절경들 각각에 대한 화자의 감상 또는 소회를 담고 있다.

[22~26] 회목

(나) 「허생전」

— 박지원 원작, 오영진 각색 —

— 수록 지문 평가 —

원작인 박지원의 「허생전」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허 생원이 군도들과 함께 백 석도라는 섬으로 가서 섬의 대리석을 캐어 팔고 변 진사와 이완이 허 생원을 찾아 섬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학과 풍자를 더하여 원작을 재해석한 이 작품의 희극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도록 하자.

[앞부분 줄거리] 군도들과 함께 섬으로 간 허 생원은 달아난 사또를 대신해 동헌을 지키게 되는데, 변 진사가 여영대장 이완과 함께 그를 찾아온다.

변 진사 : 방금 여기 있었는데? [→ 허 생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역쇠 : 히히히. [→ 역쇠는 뭔가 알고 있는 모양이다.]

변 진사 : ……?

역쇠 : (긋속) 생원님은 사람 꼬락서니가 보기 싫을 때마다 잠적하는 은신처가 있사와요, 이리 오십쇼, 마님. [→ ‘긋속’을 의미하는 지시문으로 볼 때, 허 생원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은밀한 어조로 하는 대사다.]

역쇠,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대청마루로 오른다. 뒤따르는 두 사람, 역쇠, 소리 나지 않게 살며시 병풍을 걷는다. [→ 역쇠와 두 사람이 조심스러운 동작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관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안심하고 병풍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코털을 뽑느라 여념이 없는 허 생원.

이완 : 여기 있다!

허 생원 : 어이쿠!

역쇠 : 히히히.

역쇠, 병풍을 접어서 들고, 뒷마루로 해서 내아로 퇴장. 허 생원, 아직도 숨을 곳을 찾는지 네발걸음으로 마루 위를 맴돈다. 꼬리잡기하듯, 변 진사와 이 장군도, 허 생원, 내아로 도망치려는 것을 변 진사가 민첩하게 덮친다.

▶ 허 생원과 두 사람의 유치하고도 과장된 행동이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변 진사 : 잡았다! 우리 사또!

허 생원 : (겁을 먹고) 나, 난 사또가 아니라니까요?

▶ 허 생원이 겁을 먹은 것은 변 진사가 이완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데, 이 대사로 볼 때 허 생원은 현재 자신이 섬의 사또 노릇을 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인지 염려하고 있는 듯하다.

변 진사 : 종이품 여영대장 이완 장군이지요. [→ 변 진사가 이완을 허 생원에 소개하는 말]

[중략 부분 줄거리] 허 생원은 술상을 차려 놓고 변 진사, 이완과 마주한다.

이완 : (심각하게) 상감계선 북쪽 경영에 골몰하신답니다. 불모살이 팔 년에 원한이 사모치신 거라우. [→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 갔다 돌아온 임금이,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에 은혜를 갚자는 북벌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허 생원 : (무관심) [→ 조정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음]

변 진사 : 시정과 여염에 혹시 기이현 재주가 있어, 나랏일을 함께 의논할 자가 없을까 말씀하시문성 낙루하셨소.

▶ 국사를 함께 논할 인재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임금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다. 변 진사와 이완이 허 생원을 찾아온 이유다. 나랏일에 대해 허 생원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다.

허 생원 : 상감계선 그런 사험(= 개인적으로 꺼리고 미워함)으로 북쪽을 경영하신답디까? [→ 임금이 불모살이, 즉 인질로 잡혀 있었던 자신의 개인적 원한 때문에 북벌론을 추진하느냐고 비판하는 말이다.]

이완 : 상감마마뿐이 아니요. 영의정 대감께서두…….

허 생원 : 그분이야, 이미 멸망한 명나라지만 아직두 이 나라에 살아남은 유일한 명나라 충신인걸. [→ 이미 망해 버린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력층을 비아냥대고 있다.] 머……. 콩나물? [→ 화제가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술상에 놓인 콩나물을 먹어 보라고 상대에게 권하고 있다.]

이완 : 아, 그만 충분하오. [→ ‘콩나물?’에 대한 답이다.] 바루 그 점ियो. 명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아직 명나라의 은의에 보답하지 못했소이다. [→ 상대의 내심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 가고 있다. 이완 역시 명에 대한 대의적 명분론을 드러내고 있다.]

허 생원 : 그건 개인 사정이구.

이완 : 그걸 영의정 개인 사정으로만 보겠소? 허 사또는 병자년 삼전도의 굴욕을……. [→ 청나라를 침으로써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다.]

허 생원 : 해는 짧은데 말은 길겠는걸……. [→ 상대의 말을 끊고 있다.] (일어서며) 웁지, 육포가 어디 있을 거야. [→ 상대가 이어 가려는 대화를 거부하기 위해 또 편청을 피우고 있다.]

이완 : 사또!

허 생원 : 난 사또가 아니라니까요. (허 생원, 여기저기 찾다가 드디어 백자 항아리에서 육포를 쪼집어낸다.) 헛! 여기다 두구설랑!

변 진사 : 육포 조각이나 먹으려구 온 게 아닙니다.

허 생원 : (제자리에 앉으며)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본래 육식을 앓기에 이거라두 남았지.

▶ 허 생원과 이완, 변 진사의 대화는 계속 어긋나고 있다. 허 생원이 이렇듯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분론에 집착하는 권력층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희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완 : (진지하게) 조련을 끝낸 군사가 일만 오천은 되오. [→ 조정에서 북벌을 위해 군사를 양성해 왔다는 말]

허 생원 : 장군두 육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본데? [→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

이완 : 군량과 마초(= 말을 먹이기 위한 풀)두 일 년쯤은 지탱하게끔 비축되었소.

허 생원 : 일만 오천 군량과 마초가? [→ 이완이 말한 군사의 수를 군량과 마초의 양과 뒤섞고 있다. 상대의 진지함을 비교는 태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완 : 예, 아니 군사가.

허 생원 : (허리를 잡고 웃는다.) [→ 상대는 비장하고 진지하게 말을 꺼냈는데 허 생원은 웃고 있다.]

이완 : 군량과 마초는…….

허생원 : 일 년을 지탱한다?

이완 : 그렇소.

허생원 : (데굴데굴 구르며) 으하하하……. 임진왜란이 일기 훨씬 전에 울곡 선생이 뭐랬죠?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왜놈을 막으려면, 막는 데만 말이외다, 장군. 막으려면…… 십만의 군사를 길러야 한다구……. 으아하하하……. 일만 오천으루 일 년을 지탱한다? 거 참, 장허시우.

▶ 울곡 이이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십만의 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적을 정벌하겠다는 겨우 일만 오천 병사를 준비했다는 말이라며 비웃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상과 명분에만 집착하는 권력층을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웃고 있는 것이다.



이감